

TV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00 관촬카메라24시간(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10 신대동여지도(재)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15 굿모닝 A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나만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할간 자전거 55 튜튼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非非	00 KBS네트워크 특선 숫자로 읽는 부산 남북소 55 바른말 고운말	15 장애인 주간 특집 사랑의 가족 45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12	55 생생 정보톱 스페셜	00 MBC 정오 뉴스 20 우리기락 우리문화	00 SBS 12 뉴스 30 화첩기행(재)
1 30 뉴스 특급	00 생명의전선 40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재)		25 통일전망대	30 한국의 맛
2 40 직언직실	20 TV, 책을 보다(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계는 지금	05 꾸러기 식사교실 베스트	00 SBS 뉴스 10 네트워킹현장 고향이 보인다
3 50 정공권리 시사방법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 25 뽀뿌야 놀자 55 TV 유치원 골디공	00 MBC 경제 뉴스 10 수빈 스토리 40 헬로코리아! 역사탐험대	10 생활의 달인
4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지단 55 튜튼 생활체조	25 애니월드 55 영화가 좋다(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보석 프리즈스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로 세계 40 남도지도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 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김승현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톱	20 브리보 멋진 인생	05 날씨와 생활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 7 30 러브인 아시아	50 일일 드라마 <천상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때때때 20 일일드라마 (질 키운 딸 하나)
8 30 길드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정보톱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 8 뉴스 35 KBC8 뉴스 55 현장21
9 40 채널A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0 콘서트 필	00 드라마 스페셜 (그녀들의 완벽한 하루)	00 월화특별기획 (신의 선물-14일)	00 월화드라마 (신의 선물-14일)
11 00 모유드라마 <싸인>	30 KBS 뉴스 라인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 수첩	15 심장이 쎄다
12 10 헬킴 투 시절(재) ①:10 스타패밀리송	30 국악의 향기 ①:10 생활의 발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계의 모든 디큐	10 MBC뉴스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 라인 ①:05 더쇼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창개구리 길들이기>	14:45 미앤미로봇	19:30 EBS 뉴스
05:40 성공! 인생 후반전	10:10 EBS 문화 센터	15:00 초능력 특강대	19:50 극한직업(재)
06:10 명의 3.0(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모피와 친구들	20:40 대우 오늘
07:00 놀이터 구조대, 뽀인(재)	11:20 세계테마기행 (태이원)(재)	15:30 모여라 당동명 스페셜	20:50 세계테마기행 <내팔>
07:15 오스카의 오아시스(재)	11:5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재주도)
07:30 풍선 꼬끼리 발루보(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20 오스카의 오아시스	21:50 EBS 디큐프리뷰 (아시아 음식의 비밀, 장)
07:45 뽀뽀뽀 뽀로로(재)	12:05 지식세상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인	22:45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08:00 당동명 유치원	13:10 줄거은 수학 EBS MATH	16:45 굴피와 친구들(재)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08:20 두디대(재)	13:20 외골목 친구들	17:00 방구대장 뽀뽀이(재)	24:05 지식세상(재)
08:35 방구대장 뽀뽀이	13:30 꼬마 기사 마이크	17:15 뽀뽀 뽀로로	24:10 세계 명작 극장 <다운트 버너>
08:50 굴피와 친구들	13:45 치료와 친구들	17:4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01:20 시네마 천국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00 헬로 코코몽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	
09:20 부릉! 부릉! 브루미즈(재)	14:15 시계마을 티키톱	19:0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재)	
09:35 뽀뽀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EBS플러스1

00:00 올림픽스 평가문제집 <수학 I>(재)	12:10 5분 괴담 화학 I
00:50 <수학 II>(재)	12:15 수능특강 <수학 I A형>
01:40 올림픽스 <영어독해의 기본 I>	13:05 <수학 II>
02:30 <수학 I>	14:00 <국어 A형>
03:20 뉴타임스 <생활과 윤리>	14:50 <한국사>
04:10 <사회>	15:40 <동아시아>
05:00 <한국사>	16:30 <세계사>
05:50 2013 포스 <수학 I B형>	17:20 <세계지리>
06:40 압축타임스 <화학 I>	18:10 <법과 정치>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생활과 윤리>
08:20 올림픽스 <영어독해 기본 I>(재)	19:50 5분 괴담 화학 I (재)
09:10 <수학 I>(재)	20:00 수능특강 <국어 A형>(재)
10:00 뉴타임스 <사회>(재)	21:00 <한국사>(재)
10:50 2013 포스 <수학 I B형>(재)	22:00 인터넷 수능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블로그화	<회화와 작문>독서와 문법 B형

EBS플러스2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50 <수학 4-1>
07:30 친절한 수학 익힘책 I 5-1	16:20 <수학 5-1>
08:00 행정사 시험대비 강좌	16:50 <수학 6-1>
08:30 의학·치의학·약학 적성시험 대비강좌	17:20 민중의 평가문제풀이 <수학집중 5-1>
09:00 줄거은 수학 EBS MATH	18:00 TV 중학 <영어 3-1>
09:10 TV 중학 <국어 1>(재)	18:40 <수학 3-1>
09:50 <수학 1 상>	19:20 등급신공 <수학 3-1>(재)
10:30 <역사 2>	20:00 중학 중간·기말 시험대비 문제풀이 <사회 1-1>
11:10 <국어 3>(재)	20:40 <과학 1-1>
11:50 <수학 2상>	21:20 <과학 2-1>
12:30 등급신공 <수학 2하>	22:00 <역사 1-1>
13:10 <수학 3하>	22:40 TV 중학 <수학 1(상)>
13:50 <과학 2하>	23:20 중학/포스 영문법2 <수학 3-1>
14:30 <수학 2하>(재)	24:0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5:20 면접	

“춤추는 것보다 대사 하는게 어려웠어요”

영화 ‘메이크 유어 무브’ 아야 役 보아

“어제 SBS ‘K팝 스타’ 무대에 섰을 때 너무 긴장했어요. 밤 촬영(영화 ‘빅매치’)을 끝내고 갔거든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기에 노래할 때도 어렵고, 배우는 이제 막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어렵고...”

가수에서 배우로 변신하며 ‘멀티엔터테이너를 꿈꾸는’ 보아(28·사인 왼쪽)의 말이다. 듀인 애플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메이크 유어 무브’의 개봉을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다.

‘메이크 유어 무브’는 한미합작영화다. SM 엔터테인먼트·CJ E&M과 미국의 로버트 코트 프로덕션이 공동제작했다. 이미 54개국에 팔려 63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순제작비만 120억 원이 든 이 영화는 오는 17일 국내서, 18일(현지시간) 미국서 개봉한다.

보아는 KBS 2TV 드라마 ‘연애를 기대해’(2013)에서 주인공 주연에 역을 맡아 그해 ‘KBS 연기대상’에서 단막극상을 수상했다. 그런 행운의 디딤돌을 놓아준 작품이 ‘메이크 유어 무브’다. 지난 2011년 찍은 이 영화는 그의 첫 영화 출연작이자 연기 데뷔작이다.

이 모든 건 애플리 감독의 “열정적인” 제안에서 시작했다. 보아가 가수활동에 한창 바빠 있을 때 감독이 일본까지 찾아와 대본을 건넸다.

“대본을 받아보니 다 영어였어요.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감독님이 일본까지 직접 캐스팅하러 온 열정을 보고 승낙했어요. 연기보다는 댄스가 중심인 작품이어서 부담이 조금 덜 됐어요.”

보아는 ‘플레이스텐스’(1983)와 ‘스텝업’(2006) 같은 댄스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준비했다. 시나리오를 몰랐음에도 읽고, 캐릭터에도 몰입했다.

보아가 맡은 ‘아야’는 일본에서 살다가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이다. 그룹 ‘코브’의 리더인 그녀는 우연히 프랑가 같은 삶을 살던 백인 도니(타리 허프)와 사랑에 빠진다. 도니의 형이 아야의



오빠와 대척점에 있다는 데서 갈등이 촉발한다. 영화는 댄스를 무기로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에 빠지는 두 남녀를 조명한다.

아야를 연기한 보아는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를 구사한다. 아야가 ‘오야사 미나사’라는 일본어, 또 그와 같은 뜻의 한국어 “잘 자~”를 도니에게 가르쳐주고, 영어로 밀어를 속삭인다.

“영어 지문에는 ‘결어간다. 도착했다. 키스한다’가 끝이었어요. 촬영하다가 데리과 친해져서 저도 모르게 ‘셧 업’(Shut up)이라고 말했죠. 미국에서 원래 13세이상관람가는 ‘픽’(Fuck)을 한 번 밖에 쓸 수 없거든요. 그것도 제가 사용했어요. 지문에 ‘정말 화난 것’과 ‘싸이’라고 써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아 유 픽킹 크레이지?(Are you fucking crazy?)”라고 말한 적도 있죠. 춤추는 것보다 대사하는 게 어려웠는데 애드리브로 받아줬을 때는 희열을 맛봤어요. 기본 대사보다 애드리브 들어간 부분이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메이크 유어 무브’에서 연기의 맛을 알게 된 보아는 드라마에도 출연했고, 현재는 배우 이정재와 호흡을 맞춘 ‘빅매치’를 찍고 있다. 영화 촬영을 마무리한 후 보아는 새로운 앨범 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그동안 앨범을 못 냈어요. 올해는 일본에 낼 앨범 작업에 몰두할 계획이에요. 제가 잘하는 게 퍼포먼스니까, 제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음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빠 어디가?’ 휴스턴국제영화제 TV예능 대상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밤-아빠어디가?’(사진)가 휴스턴국제영화제에서 ‘TV예능’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MBC가 13일 밝혔다. 지난해 ‘일밤’ 부활을 이끈 ‘아빠어디가?’는 아빠와 자녀들이 1박2일간 여행을 떠나서 겪는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또 다큐멘터리 ‘휴먼다큐 사랑-하나의 기적’은 ‘TV스페셜-다큐멘터리’ 부문 금상을 받았다. ‘하나의 기적’은 최근 뉴욕TV페스티벌에서도 금상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단막극 ‘드라마 페스티벌’의 ‘이상 그 이상’은 ‘TV스페셜-드라마’ 부문 은상을, 주말극 ‘백년의 유산’은 ‘TV시리즈-드라마’ 부문 동상을 받았다. 휴스턴국제영화제 시상식은 샌프란시스코, 뉴욕 국제 영화제에 이어 북미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국제상이다. 영상 분야에서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작품들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TV 하이라이트

네팔의 봄을 여는 축제 ‘홀리’



세계테마기행(EBS·오후 8시50분)=카트만두의 바그마티 강변에 있는 파슈파티나트 사원은 힌두교의 신인 시바를 위해 지어진 사원이다. 사원 분당은 힌두교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네팔에서는 신성시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힌두교인은 신신을 화상하여 그 재를 바그마티 강에 뿌려 보낸다. 외국인들에게 종교사원으로서의 역할보다 장례를 치르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한편에서 사람들은 복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으로 들어가 본다. 올해 3월17일은 네팔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이날 사람들은 서로 물감을 던지며 ‘해피 홀리’란 인사를 나눈다. 묵은 감정을 버리고 색채의 희망으로 봄을 여는 축제의 현장, 홀리를 만나다.

핵연료 처리 심각성 진단



시사기획 창(KBS1·밤 10시)=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 23기. 각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 안에 있는 수조(습식 저장소)와 지상시설(건식 저장소)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가 쌓일 대로 쌓여 2016년 부산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모든 원전에 있는 저장시설이 단계적으로 포화상태를 맞게 된다는 점이다. 원전 안에 저장 공간을 최대한 늘려서 더 촘촘하게 쌓는다고 해도 2026년이면 포화상태를 피할 길이 없게 된다. 원자력 발전 덕분에 그동안 전기를 싸게 써온 대가로 우리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에 즈음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짚어본다.

우도 젊은부부 힐링 스토리



갈 데까지 가보자(채널A·오후 8시30분)=한려수도의 절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곳 통일. 통영에서 여객선을 타고 한 시간이, 거기서 또 낚싯배를 갈아타고 가야 다다를 수 있는 작은 섬이 있다. 바로 소가 누워있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의 섬 ‘우도’. 젊은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10여 가구의 노인들만 살고 있는 섬 우도에는 자신해서 들어온 젊은 부부가 있다. 12년 전, 통영에서 직장을 다니며 자리 잡고 있던 중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이 작은 섬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김강중, 장남 연세 부부. 눈만 뜨면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섬마을 할머니들의 절대적인 믿음 속에 힘들어도 보람찬 하루를 보내는 김고 푸른 바다를 닦은 두 부부의 가슴 따뜻한 힐링 스토리를 만나보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다. 48년생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60년생 최근의 것이 가장 유력하다. 72년생 형식적인 결정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84년생 굿에서 부스럼 내지 않도록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68, 04
丑	37년생 허점이 보인다. 49년생 지켜보고만 있어도 충분하다. 61년생 뜻밖의 인연이라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73년생 서서히 회복 되어 가는 면모를 띠고 있다. 85년생 주체적으로 결정함이 낫다. 행운의 숫자 : 15, 43
寅	38년생 점점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50년생 가득 차면 반드시 넘치게 되는 법이다. 62년생 상당한 재산이 들어 오거나 영광스러운 일이 보인다. 74년생 외의 돈은 쉽게 사라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7, 56
卯	39년생 천우신조로써 대길 하는 운세이다. 51년생 계획대로 추진해도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63년생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관세이다. 75년생 끈 구름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행운의 숫자 : 30, 08
辰	40년생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52년생 열린 시각으로 살펴야 제대로 볼 수 있다. 64년생 투입 여하에 따르는 산출의 변수가 매우 크다. 76년생 기본적인 역할에 비튼이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7, 31
巳	41년생 고통은 따르지만 득이 되는 일이다. 53년생 골격을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5년생 꼭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다면 지장이 따르게 된다. 77년생 자신 있게 추진함이 효율적이다. 행운의 숫자 : 77, 80

4월 15일(음 3월 16일 丙辰)

午	42년생 이래로온 세계와 접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나. 54년생 시선이 가지 않았던 곳에 관심을 돌릴 때다. 66년생 뜻밖으로 이종의 행운이 따르리라. 78년생 강풍이 몰아치니 비바람부터 피하고 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6, 22
未	43년생 직접 나서는 적극성이 필요할 때이다. 55년생 응응을 잘 해야 쉽게 타결할 수 있다. 67년생 목표에 본격적으로 주력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79년생 불변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75, 93
申	44년생 목표에 성큼성큼 접근하고 있다. 56년생 알뜰해야 실속이 있는 법이다. 68년생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라. 80년생 기대 해왔던 이가 뜻밖의 실망을 안겨다 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4, 89
酉	45년생 예상과는 달리 너무 쉽게 끝나버릴 것이다. 57년생 중요한 점을 간파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69년생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안배를 해야겠다. 81년생 안전에 관한 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3, 96
戌	46년생 정보는 없지만 무탈한 하루가 될 것이다. 58년생 때를 맞추어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70년생 미련을 버렸을 때 새로운 가치를 깨닫는다. 82년생 과거에 얽매지 말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 행운의 숫자 : 21, 54
亥	47년생 가치치기를 잘 해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59년생 치우친다면 설득력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71년생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83년생 순조롭다고 인식할 때 복병을 만나기 쉽다. 행운의 숫자 : 42, 6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 ☎010-9790-8237